

2019년 6월 20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미 증시, FOMC 이후 상승 전환 성공 연준, 2020년 금리인하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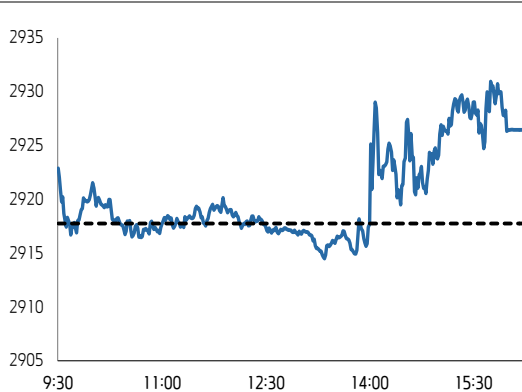
FOMC 결과

미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속에 상승 출발 했으나, FOMC 를 앞두고 매물 출회되며 하락 전환. 그런 가운데 FOMC 결과가 알려지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을 키움. 한편, 파월의장은 무역분쟁이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완화된 근거가 명확해졌다고 언급하며 상승세 유지. 다만 그 폭은 제한된 가운데 강보합 마감(다우 +0.15%, 나스닥 +0.42%, S&P500 +0.30%, 러셀 2000 +0.35%)

연준은 FOMC 성명서를 통해 경제에 대해 견조한 성장에서 완만한 성장으로 하향 조정 했으며, 인내심 문구를 삭제한 이후 '적절히 행동'할 것이라는 문구로 대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목표인 2% 미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발표. 이런 가운데 GDP 성장률에 대해서 2019 년(2.1%)은 유지한 반면 2020 년(1.9%→2.0%)에는 상향 조정. 실업률은 2019 년(3.7%→3.6%), 2020 년(3.8%→3.7%) 모두 하향 조정 하는 등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유지. 그러나 핵심 PCE 디플레이터는 2019 년(2.0%→1.8%), 2020 년(2.0%→1.9%) 모두 하향 조정. 금리 전망은 2019년에는 동결을 시사 했으나, 개별 연준위원들의 올해 금리 전망은 대체로 낮아 졌으며, 2020년에는 2.6%에서 2.1%로 2번의 금리인하를 시사

한편, 파월 연준 의장은 미-중 무역분쟁 영향이 지표에 나타나기 시작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성장이 약화돼 인플레이 하락압력을 높였다고 주장. 더불어 일부 연준 위원들이 완화된 근거가 강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시작 했으며, 그 요인으로 무역분쟁이 중요해졌다고 발표. 이번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인하 지지가 많지 않았으며, 더 명확한 경제 지표가 나와야 한다고 언급. 인플레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 FOMC 와 파월의장 발언 이후 미 증시는 상승 전환. 달러화는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으며,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폭을 확대. 다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변화가 제한되며 많은 부분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추정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124.78	+1.24	홍콩항셱	28,202.14	+2.56
KOSDAQ	717.71	+0.40	영국	7,403.54	-0.53
DOW	26,504.00	+0.15	독일	12,308.53	-0.19
NASDAQ	7,987.32	+0.42	프랑스	5,518.45	+0.16
S&P 500	2,926.46	+0.30	스페인	9,231.20	-0.10
상하이종합	2,917.80	+0.96	그리스	844.00	-1.09
일본	21,333.87	+1.72	이탈리아	21,221.38	+0.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금융주 부진

페이스북(-0.53%)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해 미 의회가 우려를 표명하자 하락 했다. 어도비시스템즈(+5.21%)는 부진한 가이드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을 바탕으로 상승 했다. 세일즈포스(+2.36%), 인튜이트(+1.72%) 등 소프트웨어 회사들도 동반 상승 했다. US스틸(+4.05%)도 부진한 가이드스 발표와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관련 우려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상승했다. AK스틸(+3.62%)도 동반 상승 했다.

유나이티드헬스(+1.83%)는 다비타(+3.08%) 인수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앨러간(+6.23%)은 사업분야를 분사한 이후 다른 대형 제약회사로 매각 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등 했다. JP모건(-0.72%), 웰스파고(-0.98%), BOA(-1.05%) 등 금융주는 연준이 2020년 금리인하를 시사하자 하락 했다. 오라클(-0.42%)은 장 마감후 실적을 발표한 이후 시간 외로 6% 넘게 급등 중이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0.50%	대형 가치주 ETF(IVE)	+0.10%
에너지섹터 ETF(OIH)	+0.14%	중형 가치주 ETF(IWS)	+0.44%
소매업체 ETF(XRT)	-0.19%	소형 가치주 ETF(IWN)	+0.28%
금융섹터 ETF(XLF)	-0.22%	대형 성장주 ETF(VUG)	+0.39%
기술섹터 ETF(XLK)	+0.36%	중형 성장주 ETF(IWP)	+0.59%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28%	소형 성장주 ETF(IWO)	+0.50%
인터넷업체 ETF(FDN)	+0.70%	배당주 ETF(DVY)	+0.21%
리츠업체 ETF(XLRE)	+0.66%	신흥국 고배당 ETF(DEM)	+0.75%
주택건설업체 ETF(XHB)	-0.56%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67%
바이오섹터 ETF(IBB)	+0.57%	미국 국채 ETF(IEF)	+0.27%
헬스케어 ETF(XLV)	+0.90%	하이일드 ETF(JNK)	+0.50%
곡물 ETF(DBA)	-0.36%	물가연동채 ETF(TIP)	+0.57%
반도체 ETF(SMH)	+0.26%	Long/short ETF(BTAL)	+0.41%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56.65	-0.22%	+2.56%	-3.57%
소재	358.65	-0.47%	-0.54%	+4.83%
산업재	642.69	-0.02%	+1.69%	+1.21%
경기소비재	946.09	+0.24%	+2.24%	+3.02%
필수소비재	600.58	+0.41%	-0.24%	+1.73%
헬스케어	1,076.10	+0.96%	+1.85%	+4.48%
금융	451.26	-0.21%	+0.65%	+0.29%
IT	1,362.09	+0.44%	+1.70%	+3.76%
커뮤니케이션	163.87	+0.18%	+3.22%	-0.32%
유틸리티	306.49	+0.81%	+1.31%	+2.97%
부동산	235.66	+0.68%	+1.89%	+4.9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제한적인 상승 예상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0% MSCI 신흥 지수 ETF 는 0.83%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455 계약)에 힘입어 0.55pt 상승한 275.4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71.3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5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이 미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며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했다. 그러나 인플레이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2020년에는 2 번의 금리인하를 전망했다. 이렇듯 연준이 미 경기에 대한 자신감 표명 및 향후 금리인하를 시사한 점은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관련 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 한국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런 가운데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의회 청문회에서 중국 협상단과 통화할 것이라고 발표한 점, USMCA 즉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간 무역협상에 대해 의회가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고 언급하는 등 무역분쟁과 관련 우려를 완화 시킨 점도 우호적이다. 더불어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조만간 북한과 대북 대화를 재개할 것이며 이는 건설적이라고 주장 한 점도 긍정적이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연준의 금리인하 시사에도 불구하고 상승 보다는 차익실현 매물 출회를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의 요인으로 미-중 무역분쟁을 언급했던 점을 감안 다음주 미-중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관망 속에 제한적인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미국 모기지 신청 건수 감소

5 월 영국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7%로 지난달 발표치(yoy +1.8%) 보다는 낮아졌으나 시장 전망치(yoy +1.6%)보다는 높았다.

미국 주간 모기지 신청건수는 지난주 대비 3.4% 감소했다. 다만 지난주에 전주 대비 26.8% 급증 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추정한다. 한편, 30 년물 모기지 금리는 지난주(4.12%) 보다는 상승한 4.14%를 기록 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국채금리 하락

국제유가는 EIA 가 지난 주 원유 재고가 시장 예상치(160 만 배럴 감소) 보다 많은 311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하고, 가솔린 재고 또한 40 만 배럴 증가 전망을 크게 하회한 169 만 배럴 감소했다고 발표 하는 등 공급 감소, 수요 증가를 시사 했으나 상승은 제한 되었다. 전일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 출회가 상승 제한 요인 이었다.

달러화는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을 시사 했으나, 2020 년 금리를 50bp 인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여타 환율에 대해 약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에 대한 자신감 등을 표명 했으나, 파월 의장이 미-중 무역분쟁이 지표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고 언급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도 달러 약세 요인 중 하나 였다. 다만, 관련내용은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속에 약세는 제한 되었다.

국채금리는 연준이 2020 년 50bp 의 금리인하를 전망하자 하락 했다. 올해 금리는 동결을 언급 했으나, 점도표를 통해 개별 연준위원들의 올해 금리 전망이 대체로 낮아졌다는 점도 하락 요인 이었다. 더불어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완화 근거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점도 영향을 줬다. 특히 단기물의 하락폭이 컸다.

금은 FOMC 를 앞두고 약보합으로 마감 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1.25%, 철근도 1.17% 상승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3.76	-0.26	+5.12	Dollar Index	97.249	-0.40	+0.26
브렌트유	61.82	-0.51	+3.08	EUR/USD	1.1226	+0.29	-0.54
금	1,348.80	-0.14	+0.90	USD/JPY	108.14	-0.29	-0.33
은	14.958	-0.23	+1.39	GBP/USD	1.2642	+0.67	-0.37
알루미늄	1,784.00	+0.17	-0.34	USD/CHF	0.9941	-0.64	-0.14
전기동	5,918.00	-0.52	+1.13	AUD/USD	0.6883	+0.09	-0.65
아연	2,478.00	-1.35	-1.24	USD/CAD	1.3288	-0.67	-0.41
옥수수	453.25	-2.11	+1.06	USD/BRL	3.8418	-0.48	-0.67
밀	526.75	-1.63	-0.80	USD/CNH	6.896	-0.10	-0.46
대두	928.75	-1.22	+2.57	USD/KRW	1176.10	-0.82	-0.55
커피	97.95	+1.40	-3.50	USD/KRW NDF1M	1171.33	-0.23	-1.03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027	-3.28	-9.38	스페인	0.400	+1.00	-17.10
한국	1.595	-2.20	-0.70	포르투갈	0.546	+1.90	-10.60
일본	-0.137	-1.30	-2.60	그리스	2.466	-2.60	-27.30
독일	-0.288	+3.20	-5.20	이탈리아	2.105	-0.70	-32.60